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창의아이디어의 글로벌사업 메카 실현

김 선 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skim@ccei.kr

美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컴퓨터정보시스템(CIS) 석사
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개소 및 확대출범식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선일)는 2014년 4월 28일 개소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지역 전담 대기업과 연계한 확대출범식을 개최하였다.

확대출범식에서는 대구광역시-삼성-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벤처·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C-Fund'가 조성되었으며, 창의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다.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舊제일모직 부지에 대구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는 협약도 이루어졌다.

2015년 2월에는 대구창조경제단지 기공식을 거행했으며, 대구창조경제단지에는 SOHO 오피스, 주민문화센터, Creative Hub, 창업기념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꿈의 차고 C-Lab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관련 우수 아이디어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아이디어 구체화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C-Lab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발은 연 2회(5월, 11월), 40여 팀을 공모 및 추천에 의해 선발한다. 2014년 11월에 진행된 1기 공모에는 약 37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최종 경쟁률은 약 200대 1에 육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기업(각 기수별 20여개 내외)들은 각 기수별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해당 기간 동안 창업관련 교육, 전담 멘토의 멘토링, 각 분야의 전문가 특강 및 사무공간을 제공받게 된다. 매월 Pitching Day를 비롯한 투자 유치 기회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우수 졸업기업들은 졸업 후에도 지역 기업으로 육성키 위한 클러스터링 사업인 'Post C-Lab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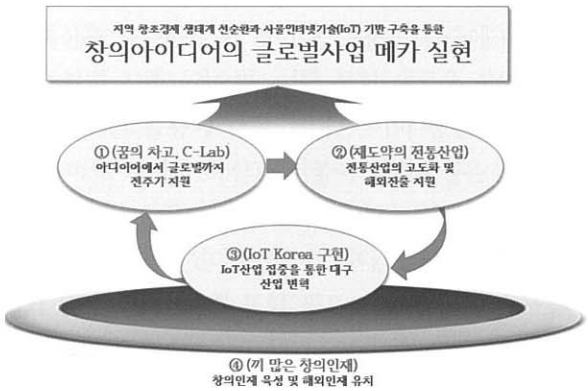

그림 1. 비전 및 목표

그림 2. 대구창조경제단지 조감도

이것만이 아니다. 센터에서는 대구지역 벤처기업·중소기업의 투자 가속화를 위한 「파트너스 데이」도 매월 개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벤처투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5년간 100억원의 규모로 조성된 펀드를 활용하여, 지역의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또한 창업하여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들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혁신코디네이터 포함 One-stop 지원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하여 지역의 기업지원 선도 6개기관(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경북연구개발특구본부)이 혁신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기관별 창업, 금융 등 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여, 수요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 창업센터와 통합하여 확대할 예정이며, 금융권(신보,기보 포함), 법무(특허,세법 등) 전담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전통산업 재도약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의 패션·의류산업의 재도약도 지원하고 있다. C-Fashion 사업의 구체화 및 패션 소공인 창조기술 글로벌 R&BD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현재 3개 분과별(C-Material, C-Process, C-Design) 특화 전략을 수립 중이다.

지역산업의 창조산업화를 위해 수요조사 및 전략 수립도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R&D기획·사업화·기술 이전 및 판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능형 기계, IT융합기술, 자동차 부품 및 튜닝산업 등 수요조사 및 지원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IoT Korea 구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시와 연계하여 IoT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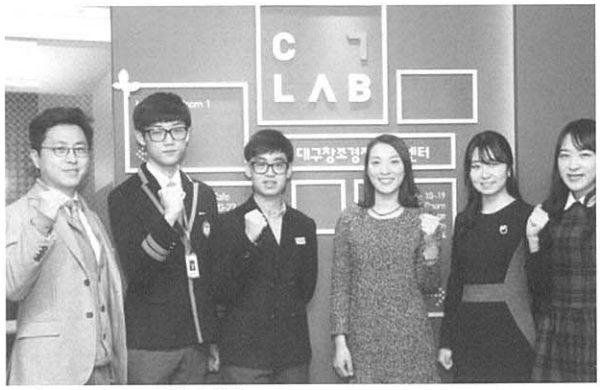

그림 3. C-Lab 1기 입과자들 모습

그림 4. C-Lab 1기생들이 특강을 듣는 모습

그림 5.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진행 모습

복합 시범지구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Hyper connected Public, Industry & City 구현을 위해, 글로벌 IoT 업체 및 글로벌 인재의 활용과 유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IoT 시범지구 설립의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창조경제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또한 창조경제 위성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대구지역을 IoT분야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IoT 산업 집중을 통한 대구산업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IoT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지역 사물인터넷 교육자원 공유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교육기관들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관련 기관을 통해 사물인터넷 포럼 등의 장·단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추후, C-Lab 사물인터넷 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끼 많은 창의인재 육성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요인인 창의인재 육성과 인재 Pool 확보를 위해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ICT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년 글로벌 해커톤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해외 젊은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력들이 대구에 머물 수 있는 창업환경도 조성할 예이다. 주요 대상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 초기(5년 이내) 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6개월간 숙박 및 협업공간 제공, 네트워킹 등의 지원이 있다. 글로벌 우수 ICT 인력을 대거 유입하기 위해 인도권·동구권·동남아시아 지역 우수 ICT 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풍부한 기술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대기업·해외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